

양동 7개시장 상인들 뭉쳐 ‘칠맥파티’ 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뭉쳤다. 호남최대 규모의 ‘70년 전통’ 양동시장에서 건강한 맥주 축제가 열린다.

2일 양동시장 7개 상인회 협의회는 “기존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온 가족이 즐기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양동시장의 7개 시장이 처음으로 모여 ‘양동시장맥주축제-양동칠맥파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양동시장맥주축제-양동칠맥파티’는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5시간 동안 양동시장 전변좌로 6번도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광역시 서구청, 양동시장 건어물 시장의 주최로 양동의 7개 시장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만들어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양동 7개 시장별 먹거리가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양동시장

5일 오후 4~9시 양동 전변좌로서 맥주 축제 개최

시장별 대표 먹거리·주먹밥 퍼포먼스 행사 등 다채

상품 저렴한 판매 ‘양동 정보통통’ ‘양동쇼핑’ 진행도

견과류, 과일안주, 탕수육 ▲경열로시장 닭날개 왕, 새우튀김, 골뱅이무침, 마른안주 ▲수산시장 닭발, 생선전, 어묵 ▲북개시장 소시지, 왕·봉, 어묵 ▲건어물시장 쥐포구이, 견과류, 황태구이 ▲산업용품시장 소시지꼬치, 문어꼬치 ▲달전길시장 양동통닭 등이다.

또 광주·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 시장담 채 즉석에서 7개 시장을 홍보하며 시장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양동뉴스-양동 정보통통’ ‘양동쇼핑’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 흥어 거래 90%를 차지

하는 양동 수산시장 이야기, 양동북개소가 공동브랜드 ‘더있다’ 개발 과정, 버스와 지하철의 입구의 관문으로 생긴 4년 된 양동신생시장 경열로 시장 이야기 등을 전한다.

또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재료를 구매해 소비자들과 상인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는 ‘모두 하나로 주먹밥 퍼포먼스’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건배를 외치며 축제를 시작하는 ‘동시 건배 기네스북’ 등도 펼쳐진다.

5시간 동안 진행되는 양동칠맥파티에서

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명근 양동 건어물시장 상인회 회장은 “최근 전통시장 등에서 야시장 등 여러 시도들이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대표 시장인 양동시장에서도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일 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양동시장맥주축제-양동칠맥파티’를 통해 젊은 소비층인 20~30대의 시장 유입 경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중호 양동시장 7개상인회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축제는 양동시장의 7개 시장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자리라 더 뜻깊다”며 “특히 행사 수익금은 기부할 계획이어서 이를 통해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상인의식을 키워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클래식 배우고 인문학 강좌 들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

겨울학기 회원 30일까지 모집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016년 겨울학기 문화센터 회원모집을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롯데백화점 광주점 겨울학기 문화센터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클래식과 인문학강좌 그리고 가족단위 이색체험, 자기계발, 프리미엄 강좌까지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특별 초대 강좌’가 눈길을 끈다. 11월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가 알려주는 공부 비법과 12월은 김창욱 교수의 ‘소통의 비법’ 토크 콘서트, 1월은 ‘투자의 여왕’의 저자 성선화가 전하는 ‘부동산으로 수비, 금융으로 공격’이란 주제로 각 매 월1회 프리미엄 강좌도 진행된다.

수강료 1000원대에 접수할 수 있는 1일 특강도 눈길을 끈다.

연말 모임,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 하려면 결코 쉬지가 않다. 인상있게 여운을 남길 수 있고 자신을 주목 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 하는 법’, 여행

전문가가 전하는 여행 떠나기 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되는 ‘미리 만나보는 유럽’, 국민연금공단 신혜경 노후준비 전문가가 전하는 ‘늘지 않는 건강한 내 몸 만들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결들여진다.

이밖에도 인기강좌로 자리매김한 캘리그라피는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의 정성과 파스함이 느껴지며 아날로그 감성을 극대화되고 있으며, 퇴근 후 취미활동을 찾는 직장인들을 위해 ‘지니로니 통기타교실’, ‘플룙 기초교실’ 등 다양한 직장인 특강과 함께 MBC아카데미 뷰티 스텝과 함께하는 재미와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강좌도 준비했다.

접수는 11층 롯데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culture.lotteshopping.com)또는 모바일(http://m.culture.lotteshopping.com)를 통해서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겨울학기 강좌를 신청하면 다양한 감사품도 준다. 정기강좌 1강좌 이상 신청 하면 ‘먼지클리닝 청소용 물리’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11월 6일까지 롯데카드로 정기강좌 현장 접수 시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메이른 추위에 전기히터·겨울의류 잘 나간다

히터 154%, 내복 64% 신장

메이른 추위로 관련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 2일 광주지역이마트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 지난 10월 28일부터 1일까지 겨울상품 매출을 살펴 본 결과 전년비 전기히터154.5%, 내복 63.6%, 겨울 의류 27.8%, 난방보조용품20.4%, 전기 매트76.3% 신장했다.

전기히터의 경우 석유·가스히터와 달리 환기나 통풍의 번거로움이 없으며 전기 온풍기에 비해 사물을 직접 가열하여 빠르게 가까운 거리 난방에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의류의 경우 남·녀·유·아동 겨울의류 모두 매출이 늘어났다.

특히 여성 의류는 전년에 비해 54% 가량 늘었으며, 특히 원피스, 레깅스와 같은 하체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제품들이 87.9% 늘었다.

남성 의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7% 가량 늘었으며, 양에서 채워진 속감이 부드럽고 솜털의 플리스 소재의 지속적인 인기로 니트류 제품 매출이 전년보다 33.5% 늘었다.

아동의류의 경우는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내복류의 매출이 주를 이뤘다.

문풍지와 틈막이 같은 난방보조용품은 일반적으로 실내온도가 1도씨 내릴때 마다 5~7%정도 난방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장점과 최대 20~35%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제품들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고 있다.

이번 난방보조용품모임전에는 전통적으로 인기품목인 문풍지외에 유리용 보온시트, 외풍차단 특수비닐, 물막이는 항균 테이프 등 기존제품에 기능과 효과를 증진시킨 신제품들도 출시되어 모음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온라인 쇼핑 세계 1위 ... 10명중 8명 이용

칸타 TNS 조사

전 세계 57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온라인 쇼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칸타 TNS가 발표한 2016년 ‘커넥티드 라이프(Connected life)’ 조사 결과에 따르면 57개국, 약 7만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 적이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8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노르웨이(78%), 브라질(76%), 영

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국은 전 연령층의 온라인 쇼핑 비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55~64세의 온라인 쇼핑 비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은 82%에 달했다.

한국인의 구매 목록을 2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식품, 위생용품, 세탁정소용품을 샀다는 응답자는 2014년보다 각각 13%포인트, 7%포인트, 6%포인트 늘었다. 반면 의류, 음악, 테크놀로지 기기의 구매 비율은 2년 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



유기농 소프트아이스크림 드세요

최근 광주신세계 지하층 푸드마켓에 문을 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백미당’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백미당’은 남양유업이 만든 아이스크림 디저트 브랜드로 유기농 소프트아이스크림 전문점이다. 유기농 농가에서 별도로 집유한 우유를 넣어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직접 찐 두유액을 넣어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인기가 많으며, 유기농 커피라떼와 티라미수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인기

식품바이어 시스템 운영

유정란 ‘다란팜’ 등 저렴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춘)의 지역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행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개점 이후부터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운영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식품바이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담양군에 위치한 유기농 전문 농가인 ‘다란팜’은 친환경 저공해로 대나무 숲, 영천산 아래 뽕나무골에 방사해 사육한 자연방사 유정란으로써 지역 대표 브랜드로써 지난 2년 동안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운영해 오던 것으로 올해 5월부터 산지직거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다란팜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 상품인 유기농 유정란(10구)을 기존에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판매했을 때 4980원 ~ 5480원에 판매를 했지만 직거래 후 3980원 ~ 45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신세계는 매해 설·추석 명절에 지역 우수산지의 품목들을 직접 골라 선보이는 ‘로컬 기프트’ 상품을 기획하고 있고 ‘산지 직송 가을 보양 기획전’ ‘청정 섬나라 수산물 산지직송전’ ‘봄 제철식품 판매전’ ‘호남물산전’ 등 다양한 산지 직거래 행사도 열고 있다.

백상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식품바이어 시스템은 광주신세계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이 시스템으로 연중 수많은 산지직송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 특산물 우수성 알림과 동시에 지역농가(생산자)와 구매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매년 광주전남우수중소기업홍보전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리산 관광특구 내,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000원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20억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